

# 전국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 '광주'

### '2023 전국 안전지수' 1등급...화재사망자 수 62.5% 감축 5등급 상승 남구, 3개 분야 1등급...영광 '우수', 광양·화순·광주 동구 '개선 우수'

광주시와 광주 남구가 전국 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3년 지역안전지수' 정부 평가에서 1등급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광군은 '안전지수 우수 지역'에, 광양시와 곡성군·화순군·광주 동구는 '개선 정도 우수 지역'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서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산정하고, 이 같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 안전 역량을 진단하고,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해 매년 공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 특·광역시체 중 2023년 지역 안전지수 평가 화재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광주시의 평가 결과는 전년도(6등급)보다 5등급이나 상승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 초고층 건물 화재 발생 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추진 등으로 화재사망자 수를 전년도(8명)보다 5명 줄여든 3명으로 62.5% 감축했다. 특히 전통시장 점포 중 전기위험이 있는 1080호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교체 등에 나선 결과, 전년도에 4명이나 발생했던 전기 관련 화재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행안부는 평가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광주 남구가 화재와 범죄, 생활안전 등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으며, 영광군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열악한 안전환경을 극복하고 화재 1등급, 교통사고·생활안전·자살·감염병 각각 2등급, 범죄분야 3등급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아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광양시(교통사고·화재·자살), 곡성군(교통사고·자살·감염병), 화순군(교통사고·범죄·자살), 광주 동구(화재·자살·감염병, 이상 등급 개선 분야) 등이 각각 3개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등급이 개선돼 '개선 정도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2023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안부(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 및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환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역의 안전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한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해 지역별로 취약 부분을 확인하고, 안전개선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중소기업에 300억 구조고도화자금

### 고금리 위기 대응 금리 연 2.12%...제조업 등 대상

광주시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2.12% 저금리로 30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은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3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은 지원 한도의 10% 범위 이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해 2.12%의 저리를 적용했으며, 올해도 고금리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2.12%의 저리를 적용한다.

또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 금리 0.5%포인트를 추가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자금 신청기간은 19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진흥원 상생일자리재단 금융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온라인 서류접수와 심사 이후 광주은행을 비롯한 8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소나무재선충병 협업방제 강화

### 도·산림청·시군 피해목 감소책 논의...3월까지 매개충 신속 방제

전남도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하고 효율적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전략회의를 열어 유관기관, 시군과의 협업방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 산림재난긴급대응반과 현장특임관, 임업진흥원 및 12개 시·군이 참석한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감소대책과 인접 시·군과의 공동방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과 향후 감소대책 방안을 설명하고 시·군별 특단의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또 피해 정도별 맞춤형 방제를 통한 확산 저지선을 구축하고 시·군 간 단계별 압축방제를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치명적 산림병해충이다. 매개충의 월동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속 방제가 중요하다. 현재 전남 발생지역은 여수 등 12개 시·군이며 오는 3월 말까지 6만5000여그루의 피해 고사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남 동부권인 여수, 순천, 광양에 피해가 집중

하고 있고 최근 북부권인 장성고 나주 등 일부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전남도는 3월 말까지 78억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고사목 6만 5000그루를 전량 제거하고 1400ha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1만3000여 그루의 피해고사목을 제거했고 공원, 관광지, 피해가 가벼운 400ha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내륙지역 우선 방제에 따른 도·시·군 확산이 우려돼 여수 소규모와 금요도 집중 방제를 위해 산림청의 긴급방제비 17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해목 조기 발견을 위해 예방방제단 72명을 운영하고 인력 접근이 어려운 섬지역은 헬기와 드론예찰을 강화해 방제사 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피해가 심한 여수·순천을 중심으로 목재펠릿제조시설과 연계한 모두베기를 확대해 피해목 제거 예산을 절감하고 베어진 피해목은 목재펠릿 원자재로 활용키로 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구직 청년 일 경험 상담 받으세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의 일환인 '제15기 드림남의 날' 행사가 19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참여기업 부스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미술·공연 전용공간 확충 나선다

### 호남 유일 전문예술극장·비엔날레전시관 추진...통합수장고 건립도

광주시가 공연, 미술, 콘텐츠 등 분야별 문화예술 공간 확충에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484억원을 투입, 특색 있는 문화시설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페라, 뮤지컬 등을 선보이는 전문 예술극장 설립을 위해 올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부지, 사업비 등을 구체화하고 내

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신속 사업도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연말 설계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1181억 원을 투입해 전시실, 아카이브 관, 지원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문화재, 작품들을 보관할 가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개방형 광역 수장보존센터(통합 수장

고)도 건립한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협업체 상반기 중 부지 공모 절차를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음악 축제, 공연장으로 활용될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도 내년 완공 예정이며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 조성도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계획 용역 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혐오시설이었던 옛 광주 상무 소각장에 들어서는 광주 대표도서관과 '1자치구 1시립도서관' 확충 계획에 따른 광산구 하남지구 시립도서관은 내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해빙기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 강화

### 전남도, 4월5일까지 토목·건축·기계 분야별 합동점검

전남도가 19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를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취약 시설물 29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해빙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공사장, 절개지 사면, 낙석 위험지역, 축대, 옹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형공사장의 경우 공사장 인접 지반 침하, 균열로 인한 건축물 상태, 흙막이 계층 관리 및 에스앵커 결합 여부,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및 지주 변형 여부 등이다.

절개지나 낙석 위험지역에선 도로 사면 또는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및 인공사면 균열, 지반 침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축대나 옹벽에선 해빙기 동결융해 등으로 인한 옹벽 및 축대 균열 및 침하, 붕괴 징후 여부 등에 집중한다. 또 재난 취약 주요 시설물은 도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관리주체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아토피 초등학교, 장성으로 유학오세요

## 아토피 유학 설명회

- 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 일시 : 2024년 02월 28일 (수요일) 15:00

## 우리 아이 아토피! 온 마을이 함께합니다

- 피부과 전문의 및 한의원의 정기 진단 진료
- 통합의약의 입장에서 전문약사가 진행하는 숲이 보낸 처방전
- 숲해설가 및 산놀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숲속 놀이
- 놀이 전문가가 진행하는 황토길 산책 및 맨발걷기
- 전문한의사를 한방주치의 제도 아토피 제로
- 교육심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 숲에서 이루어지는 1박2일 가족캠프

## 특별혜택 - 거주 펜션 지원 (선착순 30명)

- 축령산 자연속에서 신나게 놀아요
- 아토피 관련 치유 프로그램
- 다양한 방과후 특별교육(물놀이 숲놀이)

## 1급수 축령산 모암저수지

## 어린이 물놀이터, 숲놀이터

## 개장예정

전라남도 장성교육 지원청 (061) 390-6000